

구미지역경제

ISSUE FOCUS

Vol. 35 (2020. 01.)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1
02 국내외 경제이슈	6
03 국내외 정책이슈	17

[FOCUS]

01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시행	27
02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31

작성 : 오현주 선임연구원
(hjoh@geri.re.kr)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자율비행 헬기 개발 업체 Skyrise

- Skyrise는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설립된 업체로, 2019년 12월 기존 헬기에 적용이 가능한 자율비행 시스템 및 장치를 시연
- 이번에 공개한 자율비행 시스템은 Robinson R-44 헬기에 Skyrise가 자체 개발한 Flight Stack을 추가해 시연
- Skyrise의 Flight Stack은 완전 자율비행 또는 특정 부분만 자율비행이 가능한 비행 컨트롤 기능을 포함하며, 비행 컨트롤 기능에는 조정대를 제어하는 센서와 기타 비행 데이터와 함께 헬기 흔들림 방지 기능도 포함
- 이 외 헬기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안전 한계를 넘어가는 행동을 피하기 위한 추가 보안 레이어도 포함되어 있음. 단, 상용화 시기는 미공개



Intel, 대만 MediaTek과 협력해 PC용 5G 모뎀 개발 예정

- Intel은 대만 MediaTek과 협력해 차세대 PC용으로 5G 모뎀 솔루션의 개발, 인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Intel은 5G 솔루션 사양을 정의하고 MediaTek은 5G 모뎀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할 예정
- Intel은 첫 번째 5G 모뎀이 2021년 초에 출시될 것이며, Dell과 HP가 5G 모뎀 칩을 탑재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한편, Intel은 스마트폰용 5G 모뎀 사업을 Apple에게 매각했으며, 당시 PC용 4G와 5G 사업의 가능성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는데, MediaTek과 협력해 PC용 5G 모뎀 칩을 개발하기로 결정
- 다만, 현재 노트북의 경우 학습 및 업무용, 그리고 고성능 게임용으로만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동사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바일 단말이라기 보다는 WiFi나 유선으로 사용하는 단말이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5G 도입이 확대된다고 해도 5G 지원 노트북 판매가 크게 확대될지는 의문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Qualcomm, 세계 최초 5G 확장현실 플랫폼 Snapdragon XR2 공개

- Qualcomm이 세계 최초로 5G XR 플랫폼인 Snapdragon XR2 플랫폼을 공개
- Snapdragon XR2 플랫폼은 기존 Snapdragon 835 Mobile XR 플랫폼 대비 2배 향상된 CPU와 GPU 성능, 4배 넓어진 동영상 대역폭, 6배 선명해진 해상도, 11배 개선된 AI 기능을 제공하는 등 성능이 크게 향상
- 또한 MS HoloLens 스타일의 Pass-through 스타일의 혼합현실과 부드러운 독립형 VR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7개의 카메라를 지원하고, 정확한 주위 환경 맵핑과 함께 26개 관절을 인식할 수 있는 핸드 트래킹을 지원
- 90fps 속도의 3000×3000 해상도 지원 패널을 지원하고, 60fps의 8K 360도 동영상 재생도 지원
- 한편, Qualcomm은 Pokemon Go 게임 개발업체인 Niantic과 협력해 Snapdragon XR 플랫폼 기반의 증강현실 안경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도 Qualcomm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고성능 혼합현실 단말용 칩셋이 개발됨에 따라 증강현실 안경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증강현실 서비스와 UI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모바일 AR 환경에서부터 AR 서비스와 최적화된 UI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中, 컴퓨터 기가SW-운영체제 등 IT 기술 자립 가속화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년에 중국 각 부처와 공공기관 컴퓨터의 약 30%, '21년에 50%, '22년에 나머지 20%를 국산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
* 교체하는 컴퓨터 비중의 앞글자를 따서 이 계획을 352 정책이라 명명
- 이 같은 조치는 화웨이, ZTE 등 중국산 제품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대응하며 자국 기업의 공급체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 Dell, HP 등 PC와 MS의 윈도우OS 등 미국 기업 제품이 표적이 될 전망이며 퇴출 컴퓨터 규모는 최소 2,000만대에서 최대 3,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한편, 중국 정부 기관 대부분은 자국 기업인 레노버PC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에 탑재한 CPU 등 주요 부품은 한국이나 미국 기업이 생산한 것으로 외국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
- 일각에서는 MS의 OS 윈도우가 중국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
- 한편 다수의 중국 기업(CEC, ZTE, Deepin, ARCHERMIND 등)이 연합해 만든 자체 PC OS UOS 공개 테스트에 착수하며 기술 자립의 움직임 가속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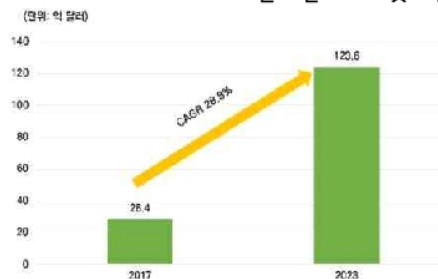
01

국내외 기술동향

AI 로봇 시장을 겨냥한 국내 ICT 업계 연구개발 활기

- 공항에서 길을 안내해주고, 은행에서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등 다양한 지능과 고도의 판단능력을 가진 AI 로봇 시장이 활기
- AI 로봇은 24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육체나 감정노동을 사람 대신 할 수 있는 데다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
- 최근 많은 기업이 고객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몰, 호텔, 공항, 은행 등에서 AI 기반의 로봇을 선보이거나 향후 계획을 논의
- 글로벌 AI 로봇 시장은 '17년 28억 4,000만 달러에서 '23년 123억 6,000만 달러에 달해 28.8%의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AI 로봇 시장 전망 및 AI 로봇 >



(가) 글로벌 AI 로봇 시장 전망



인천공항 안내 AI 로봇 '에어스타'



우리은행 AI 로봇 '페퍼'

(나) AI 로봇

- 국내 ICT 기업은 AI 로봇 개발을 위해 해외 전문가와 교류를 추진하거나 세계 각지에 AI 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등 AI 로봇 개발을 가속화
- (네이버) 글로벌 AI 전문 인재와 함께 AI 로봇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MIT와 협력하여 개발한 AI 로봇을 공개하는 등 전략적인 노력을 경주
 -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AI로봇 분야 석학들과 함께 AI 로봇에 대해 토론하는 글로벌 워크숍을 개최('19.11)
 - 또한, 네이버의 연례 기술 개발자 회의 DEVIEW 2019에서 MIT와 공동개발한 AI 기반의 4족 보행 로봇 미니 치타를 공개('19.10)
 - 한편, '21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 성남에 짓고 있는 제2사옥을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구축할 방침
- (KT)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에 AI 로봇 엔봇을 상용화
 - KT 융합기술원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3D 공간맵핑 기술, 자율주행 기술 등이 적용되었으며 객실 내 기가지니 기기를 통해 음성 또는 터치로 수건 등 객실 용품을 요청하면 엔봇이 배달
 - 특히 호텔 엘리베이터와의 통신을 통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승하차하며 층간 이동이 가능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 향후 100여개 객실에서 AI 호텔 로봇을 통한 객실용품 무인 배달서비스를 제공한 뒤 이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 **(삼성전자)** '18년 실리콘밸리 AI 연구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5개국에 7개의 AI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개발 집중
- '19년 1월 HW, SW, AI 기술을 한데 모은 로봇 플랫폼 삼성봇을 공개하며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
- 노인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반려 로봇 삼성봇 케어, 공기질을 관리하는 삼성봇 에어, 쇼핑물 등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봇 리테일, 요리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삼성봇 셰프, 청소 로봇 삼성봇 클린을 개발
- 향후 AI에 기반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AI 로봇 제품을 선보일 계획

< 삼성전자의 AI 로봇 >



(가) 삼성봇 케어



(나) 삼성봇 에어



(다) 삼성봇 리테일



(라) 삼성봇 클린

- **(LG)** 로봇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로봇사업센터를 신설('18.11)했으며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등 투자를 확대
- 로봇을 미래사업의 한 축으로 삼고 상업용에서 가정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지속 모색
- 네이버의 기술연구 자회사 네이버랩스와 로봇 분야의 연구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협력을 맺었으며 SK텔레콤과도 5G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국내 우수 스타트업 로봇 기업에 대한 인수와 투자도 병행하며 AI 로봇을 차세대 비즈니스로 적극 육성

< LG의 로봇 사업 주요 투자 현황 >

날짜	기업	분야	투자액
'17.5	SG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	30억원
'18.1	로보티즈	서비스 로봇 솔루션 업체	90억원
'18.5	아크릴	AI 스타트업	10억원
'18.6	보사노바로보틱스	로봇 개발업체	33억원
'18.7	로보스타	로봇 제조업체	800억원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배달 앱 플랫폼 업계, M&A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배달의 민족 브랜드로 배달 앱 사업을 영위해 온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자사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발표
- 매각 금액은 약 4조 7,500억원 규모로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이 음식 배달 사업을 추진하면서 쌓아온 노하우 가치를 높이 평가
- 우아한형제들은 향후 아시아 시장 진출 시 기존 배달의 민족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상장 효과도 누릴 전망
- 이미 국내 배달 앱 2, 3위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해온 딜리버리히어로는 경쟁 체제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
- 양사는 50:50 지분으로 합작사 우아DH아시아를 싱가포르에 설립하여 아시아 배달 앱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
-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우아DH아시아 CEO를 담당하며 딜리버리히어로가 진출한 아시아 11개국 사업 전반을 담당할 예정
- 최근 차량 공유 앱에 배달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배달 시장에 진입한 그랩, 우버, 고젝 등 메가 앱 사업자에 대응해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

< 우아한형제들 매각과 새로운 합작회사 설립 구상 >



-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M&A가 국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시아와 글로벌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고 설명
- 장기적으로 소비자음식점주배달원 모두가 혜택을 누리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동남아 지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대형 배달 앱 플랫폼에 대응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는 취지
- 이를 위해 효과적인 배차, 주문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 도입 등 전반적으로 배달 운영 효율화,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
- 반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장악한 독일 회사가 각종 비용을 인상해 자영업 위기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다수
- 배달 앱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해 선호하는 메뉴 재료, 포장재 등을 독점 공급하며 생태계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 결과 ('19.12.22.)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2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 가자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동북아 3국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

* '19.12.22(일) 16:20~17:50 / 18:20~19:20 3국 대표단 만찬

- 성윤모 장관은 동북아시아 3국간 양자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역내의 안정적인 협력과 번영을 위해서는 3국 다자간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성장관은 中日 장관들과 RCEP, 한중일 FTA 등 3국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Framework)을 강화하고, 기후변화고령화사회 등 3국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공동협력 강화, 신흥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음

• 주요 내용

- 금번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무역 및 산업협력에 대한 3국간 협력강화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음
- 그간 동회의에는 통상분야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금번 회의에는 에너지 정책, 고령화 사회 및 4국 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 등 산업·사회 분야의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음
 - 에너지 협력에 대해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처음으로 3국 장관간 성공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에너지 전환과정에 있어 3국이 협력하기로 선언하였음
 - 또한, 3국 장관은 역내 상호연계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제4국 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또한, 통상, 다자무역체제,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도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
 - 3국은 내년 RCEP 서명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하였음
 -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위하여 공조하고, APEC, G20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
- 금번 장관회의에 앞서, 성 장관은 주최측인 중국 상무부와 한중간 무역 투자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
 - 양국관계가 그간 제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으나, 앞으로 서비스 등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자고 동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전하자고 합의
 - 더불어, 성 장관은 반도체 반독점조사 등 양국간 통상현안에 있어서도 중국 정부가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지자체,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P-CBO)에 동참 ('19.12.23.)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자동차부품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

<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 '19.12.23(월) 15:00~16:20,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서울 서초구)
- 참석자 : 산업부(산업정책실장),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기업 등 30여명
- 업무협약명 : 자동차부품기업 등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체결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금
 - * 참여 지자체(8개) :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협약내용 : 예산을 출연한 지자체에 대한 우대방안, 출연금 납부 절차 및 방법 등

• 주요 내용

-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18.12)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에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 *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신보의 신용을 보강하여 시장에 매각 → 기업의 자금 확보 지원
- 업무협약에 참여한 8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예산을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해 발행금리 0.2%p 감면, 우선 편입 등 우대 지원하기로 함
- 정부는 완성차업체,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재원을 조성하여 올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동차부품기업 93개 업체에 2,9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3,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
-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기업들은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이 일반 우대보증에 비해 대규모 자금*을 장기(3년)에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도,
 - * 지원한도(기업당) : (일반우대 보증) 30억원, (P-CBO) 중소 150억원, 중견 250억원
- 최근 자동차 생산감소에 따른 납품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많은 지자체들의 출연과 관심을 호소하고,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 지원이 필요함을 요청
-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업체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 지난 10월 발표한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산업부·중기부, 지역경제위원회 공동 개최 ('19.12.26.)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6일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양 부처 지역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향후 지역산업 및 기업육성 방향에 대해 논의

* 지역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등 심의·조정 기구(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제5조)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9.12.26(목) 16:00~17:30, 산업부 대회의실(506호)
- 참석자 : (산업부) 차관, 지역경제정책관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 (지자체) 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 회의내용 : ①의결안건 : 20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산업부·중기부)
②보고안건 : (산업부) '20년 지역산업 정책 추진방향 등,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개편방향 등
③건의사항 : 14개 시도별 경제담당 부단체장
- 안건보고 : (의결) 2020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보고①) 2020년도 지역산업 정책 추진방향
(보고②)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개편방향
(보고③) 지역산업지원사업 개편사항
(보고④) 중기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

-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17년 산업부와 중기부가 처음 공동 개최한 이후 세 번째 회의로, 산업부 정승일 차관,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 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예산 등 '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정부 지역지원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지역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

< 2020년도 세부 사업별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합계
총계	477,596	197,351	674,947
산업부	275,524	117,599	393,123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91,693	38,018	129,711
광역협력권산업육성	88,634	32,129	120,763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56,700	24,300	81,000
사회적경제혁신성장	19,997	12,432	32,429
지역활력프로젝트	18,500	10,720	29,220
중기부	202,072	79,752	281,824
지역특화산업육성+(R&D)	99,917	26,105	126,022
지역특화산업육성	89,326	53,647	142,973
국가융복합단지연계지원	12,829		12,829

• 주요 내용

- '20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광역협력권산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8개 사업 총 6,749억원(산업부 3,931억원, 중기부 2,818억원)을 투입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이번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지역 산업·기업 육성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주도로 지역혁신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연계·효율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지역여건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13대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 *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화학, 조선, 기계장비, 항공, 가전, 철강, 섬유,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등
- 또한, 지역기업의 생태계 관점에서 지역혁신을 선도할 유망기업을 잠재 → 예비(연 300개) → 선도(연 100개) 기업으로 유형화*하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
 - * 기준 예시(지역별 탄력적 적용) : (잠재) 매출 100억원 미만,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 (예비) 매출 100~500억원, 성장 잠재력 검증된 우수기업, (선도) 매출 300억원 이상, 거래관계 핵심기업
- 아울러,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지역 산업과 기업육성 관련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 산업부는 차별화된 지역경쟁력 기반 지역주도 제조혁신의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2020년도 지역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
 - ①지역산업 진단 및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②산학연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혁신사업을 개선하고, ③산단 대개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역산업 연관 투자를 활성화
- 중기부는 앞으로 지역기업 육성을 신산업 유망기업에 집중하여, 규제자유특구 등과 연계하여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지역내 거래관계망 핵심인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
 - * ①주력산업 영위, ②지역내 거래관계망(납품·하청)의 핵심역할 수행, ③매출 300억원 이상, ④R&D집적도 및 신제품 출시 등 혁신성, ⑤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등
 - 이를 뒷받침하도록 민간 전문기업 등이 유망기업을 선별先 투자하면, 정부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지역기업 혁신성장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규로 도입('20년 시범사업)
 - * 연구개발서비스기업 등 전문기업을 주간사로 지정하여 민간 주도로 유망한 지역기업을 선별하여 패키지방식으로 정부지원을 연계하여 집중 육성
-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차별화된 지역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혁신원천임을 강조하면서, 지역 산업기업의 혁신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함
 - 중기부 윤세명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지역기업 육성사업을 성과 관점에서 혁신하고,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기업 육성, 시장친화적 투자연계 확대 등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힘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20년 범부처 해외마케팅 추진계획 논의 ('19.12.26.)

- 정부는 내년 수출회복을 위해 5,112억원을 투입해 약 7만여건의 중소·중견기업 해외 마케팅을 총력 지원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 수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올해 4번째로 개최하고, '20년 범부처 해외마케팅 추진계획을 논의

< '19년 제4차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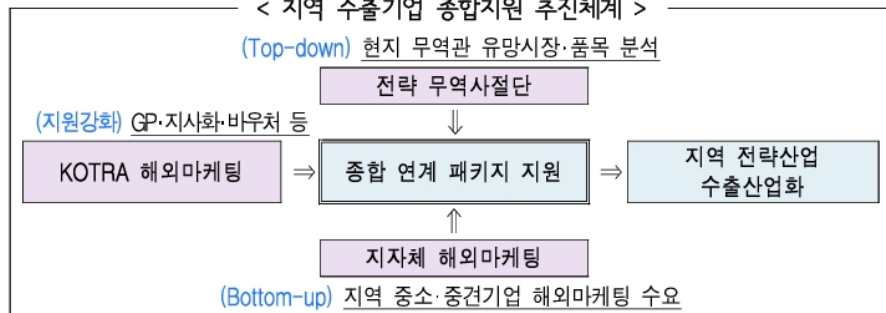
- 일시·장소 : '19.12.26(목) 15:00~16:30,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대상 : 산업부(무역투자실장 주재), 중기부, 농림부 등 7개 관계부처, 16개 광역 지자체, 무역협회, KOTRA, 중기중앙회, NIPA 등 15개 유관기관

- 이날 회의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수출 유관기관은 내년 녹록치 않은 수출여건 속에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최대한 이른 시점에 수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 해외전시회, 수출바우처 등 '20년 해외마케팅 지원에 5,112억원을 투입하여 약 7만 여건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하기로 결정

• 중점 추진방향

- ① 기업 수요가 높은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은 참가규모를 대형화하고 품목을 전문화 하여 유력 바이어 유치와 수출성약 성공률 제고 등 지원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
 - 이를 위해, CES, MWC 등 30개 이상의 글로벌 유명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진출시장·유망품목을 사전에 분석해 규모 있는 사절단을 구성하는 전략 무역사절단을 '20년 신설해 82회 집중 파견
 - * 동일 전시회 내 다수 부처·지원기관의 한국관을 동일 디자인·인근 위치로 통합하고, 세미나·바이어초청·체험부스 등을 다수 부처·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 ② 지역기업의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지자체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코트라의 국내외 지원수단을 상호 연계하는 지역 수출기업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

< 지역 수출기업 종합지원 추진체계 >



- 코트라 무역관의 글로벌 시장분석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수요, 코트라의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수출 컨설팅부터 맞춤형 마케팅, 후속 성약지원까지 수출 전과정을 밀착 지원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예시)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 전략무역사절단/해외전시회 참가 → 유망바이어 발굴
→ 무역관에서 현지 지사역할 지원 → 유망바이어 국내 초청 → 성약후속지원 등

< '20년 지자체-KOTRA 협업 중점 지원 분야 >

지역	중점 분야	지역	중점 분야
부산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중장비	충북	뷰티바이오원료, 기계
경기	소재부품, 콘텐츠	경기북부	소비재, 섬유
경남	자동차, 기계부품, 조선, 항공	강원	식품, 소비재
광주전남	금형, 신재생에너지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기계, 소비재
전북	탄소소재, 소비재	인천	소비재, 의약품
울산	자동차, 조선, 기계	대전충남	소비재, 소재부품

③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지원하고 신산업·소비재 등 新수출성장 동력 지원을 강화해 수출품목을 고도화

-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해외전시회 지원 비중을 35%에서 45%로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무역사절단을 '19년 32회에서 '20년 50회로 강화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수출바우처를 신설해 300개사를 집중지원

- 소비재는 한류가 거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재 무역사절단을 50회 파견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강화하는 한편, 한류박람회, K-Contents 등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상호연계강화*해 한류를 활용한 현지진출을 집중지원

* 부처간 한류·소비재 행사 연계 강화를 위한 소비재수출 워킹그룹 구축('20.1분기)

-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은 신산업 사절단(7→10회)을 확대하고 드론·전기차 핀테크 전시회를 신규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VR·AR 수출컨소시엄, 의료 해외진출 등 신산업 프로젝트를 집중지원

④ 해외마케팅을 신남방·신북방 시장 개척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남방·신북방 무역사절단을 '19년 89회에서 '20년 100회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지원 비중도 '19년 26.4%에서 '20년 27.8%로 지속 확대

- 또한, 현지에서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지 新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를 '20년 3개소 신설하고 현재 모스크바 무역관에 설치된 한러 산업기술 협력 데스크를 러시아 전체 무역관 4개소로 확대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내년은 수출 분위기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 최대한 이른 시점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양적·질적으로 강화된 해외마케팅과 무역금융을 토대로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 총력지원을 연초부터 즉시 가동하는 한편,

- 기업들이 정부의 수출지원을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에도 최대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01.0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20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금번 회의에서는 ①-1) '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①-2) '20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② 최근 중동지역 불안에 따른 대내외 상황 점검 및 파급영향 대응, ③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④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계획 등이 논의
- '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주요 내용

① 적극적 조기집행 필요성

-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성장세 개선이 전망되나 대외 불확실성, 건설투자** 조정 지속 등 하방위험 상존

* '19→'20년 IMF 세계경제 전망(%), ('19.10) : (성장) 3.0→3.4, (교역) 1.1→3.2

** 건설투자(전년동기대비, %) : ('18.4/4)△5.7, ('19.1/4)△7.2, (2/4)△3.5, (3/4)△3.0

-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 ①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한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 필요

* 총지출(조원) : ('18) 428.8<7.1%↑, ('19) 469.6<9.5%↑, ('20) 512.3<9.1%↑

- ② 저소득·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포용적 복지예산의 적기집행 필요

② 2020년 재정 조기집행 목표

- (중앙재정)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를 305.5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62.0%로 설정

* 인건비 등 조기집행이 곤란한 비목을 제외한 주요사업비

- 일자리, SOC 사업 등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상반기 집행목표를 전년대비 각각 1.0%p, 0.7%p 상향한 66.0%, 60.5%로 설정

- (지방·지방교육재정) 상반기 집행목표를 지방재정 60.0%(전년대비 +1.5%p), 지방교육재정 63.0%(전년대비 +1.0%p)로 설정

< '20년 상반기 재정집행 계획 >

(단위 : 조원, %)

구분	2019			2020(잠정)*		
	연간계획	상반기계획	집행률	연간계획	상반기계획	집행률
중앙재정	291.9	178.1	61.0	305.5	189.3	62.0
일자리사업	13.4	8.8	65.0	11.9	7.9	66.6
SOC사업	42.9	25.1	59.8	46.7	28.3	60.5
지방재정	199.1	116.5	58.5	228.4	137.1	60.0
지방교육재정	18.9	11.7	62.0	20.6	13.0	63.0

* '20년 연간계획 및 상반기 집행 규모는 '19년도 이월액 등을 추가반영하여 2월 중 확정 예정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③ 재정 조기집행 추진방안

- ◇ '20년 1월부터 집행이 개시되어 1/4분기 차질없는 집행 및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

(1) 신속한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추진

- (예산배정계획 확정)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1.4%(전년 대비 +1.0%p)를 상반기에 배정('19.12.24)
-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생활 SOC,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9.6조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완료('19.12.24)
 -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규모(조원) : ('17) 3.5, ('18) 4.1, ('19) 8.8, ('20) 9.6
- (자금배정 확대) 1월 전년대비 10.3조원 증가한 55.3조원을 자금배정(1.6일)* 하여 1/4분기 신속한 재정집행을 적극 지원
 - * '19.1월 배정액 45.0조원(예산대비 11.3%) → '20.1월 배정액 55.3조원(예산대비 12.9%, 전년대비 +10.3조원)
- 연초 긴급 집행소요에 대한 수시 자금배정(1.2일) 완료

(2) 집행 자율성 제고 및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선

- * '19.12.31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여러 부처에서 지원받은 시설별 예산의 부처시설 구분없이 통합 사용을 허용하여 신속한 건설을 지원
- (국고보조사업)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점에 공모절차를 시작하도록 하여 조기집행 촉진

(3) 지자체 보조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강화

- (중앙부처) 1,033개 사업(65.6조원) 중 924개 사업(61.2조원)은 '19.12월말까지 확정내시*를 완료
 - * 예산안 국회통과 후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금의 지자체별 배정 규모를 확정하여 통지
- 확정내시 전이라도 소관부처는 지자체에 내시 지연사유, 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 대응 추경예산 확보 독려
- (지자체) 당초 지자체 예산에 미반영된 경우라도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하여 1분기부터 신속히 집행
 -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자체 추경예산 성립 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비 매칭 전 교부된 국비를 우선 집행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4)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 각 부처별 집행 사전준비 계획을 수립('19.11)하고 주요 사업 유형별로 사전 준비 추진
 - (출연사업) 사업공고를 1월내 조기 추진하고 R&D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1분기에 완료
 - (용자사업) '19년 모집공고 완료사업은 1월 즉시집행, 공고 미완료 사업은 1월중 공고 완료 후 1분기내 최대 집행
 - (총액계상 사업) 원칙적으로 1월내 재정당국과 내역협의 완료
 - (수시배정·총사업비 변경) 수시배정 협의 요건을 조속히 구비하여 협의를 1분기 내 신속추진하고, 총사업비 변경도 조기 협의

④ 1/4분기 재정집행 중점관리

(1) (경기활력 제고) 일자리, SOC 등 1/4분기 집행목표 수립·관리

- (일자리) 1/4분기 목표를 37.0%(전년대비 +1.0%p)로 적극 설정
 -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19.12월부터 사업계획 확정, 모집공고 등 채용절차 既 실시 → 1월부터 조기채용 추진
 - * 노인일자리(1.2조원, 74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0.2조원, 2.2만) 등
- (SOC) 사전절차를 1~2월 중 완료*하여, 철도(6.4조원)·도로(6.6조원) 등 예산의 30% 수준 1/4분기 조기집행 추진
 - *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12.24) 사업은 차수계약,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既 착수·추진중
- (생활SOC) 대형 사업(1,000억원 이상 29개 사업, 7.8조원) 집중관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

(2) (포용적 복지) 저소득·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의 적기집행

-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정상적인 집행 추진
 -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1월 중순 이전)
 - * 국회 통과 지연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에 대해 월 5만원씩 증가한 연금액 지급 불가, 농어업인 36만명 국민연금보험료(월평균 41,484원) 혜택 중단
- 설 연휴 前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없이 집행지급
- (향후 관리계획)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재정 조기집행 실적 점검, 집행 애로 요인 및 해소방안 마련, 집행 독려 추진
- '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집행현장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현장조사를 실시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듀폰사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한국투자 유치 ('20.01.09.)

① 미국 투자유치활동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9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對韓 투자유치활동을 추진
-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산업부는 성윤모 장관이 주재한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소재부품장비(반도체자동화), 신산업(수소경제·재생에너지IT), 벤처캐피탈 분야의 혁신기업(10개사)을 초청하여 한국투자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
- 한편, 성윤모 장관은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앞서 1월 8일 글로벌 화학소재 기업인 듀폰사의 존 캠프 사장을 별도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듀폰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한국에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코트라에 투자신고서를 제출함

< 듀폰사 개요 >

- 설립연도 / 매출액 / 고용 : 1802년 / 226억불 / 3만 2천여명('18)
- 주요업종 :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AMOLED 및 디스플레이 화학제품 등
- 규모 : 전 세계 70여개국에 163개의 자회사 보유

② 미국 투자유치활동 주요성과

(1) 듀폰 반도체 소재 투자유치

- 이번 투자유치활동 계기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존 캠프 듀폰사 사장은 현지에서 개별면담을 통해, 듀폰사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한국 투자를 최종 확정
- 듀폰사의 존 캠프 사장은 성윤모 장관이 임석한 자리에서 장상현 KOTRA Invest Korea 대표에게 금번 투자와 관련하여 2.8천만불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하고, 양측은 한국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함

< 듀폰사 투자계획 >

- 투자신고금액 / 투자예상기간 / 지역 : 2.8천만불 / '20~'21년 / 충남 천안
- 투자분야 :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 CMP패드" 생산
 - * 웨이퍼(기판)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성 재료, 파장이 짧을수록 미세화 공정에 적용 가능
 - **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화학적, 기계적 방법으로 연마하여 평탄화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패드(듀폰은 CMP 분야 세계시장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선두 업체로 이번 투자로 수입 대체 효과 및 국내 CMP 원재료 생태계 강화 기대)

• 투자 배경 및 경과

- 듀폰사는 한국내 자회사인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를 통해 '98년부터 천안에 2개의 공장을 가동하여 반도체 회로기판용 소재부품을 생산해왔음
- * 듀폰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KrF(불화크립톤), ArF(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빛반사방지막제, 금속박막도금, 유전체, 클리닝 화학제품 등이 있음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이번 투자는 듀폰社가 반도체 극소형화에 필요한 차세대 제품기술개발 및 공급 다변화 요구에 부응하고, EUV용 포토레지스트 등 점차 성장 중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핵심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공급 안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인 듀폰社와 직접 접촉하여 투자유치를 협의
 - 이 과정에서 정부-지자체-KOTRA가 원팀으로 듀폰社와 투자협상을 진행하여 경쟁국을 제치고 한국이 최종 투자처로 선정된 바,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향후 투자과정에서 애로사항 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
- * 인센티브 : 투자부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임대료 감면 등

• 이번 투자의 의의

- 존 캠프 사장은 투자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을 위해 앞으로 한국 내 주요 수요업체와 제품 실증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성 장관은 일본 정부의 EUV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특정포괄허가 허용* 등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결에 진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공급선 다변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하는 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심사승인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 공시('19.12.20)

(2) 실리콘밸리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요 >

- 일시·장소 : '20.1.9(목) 10:30~12:00(현지시간), 포시즌스 호텔 실리콘밸리 볼룸A
- 참석기업 : 10개사

구분(10)	기업명(분야)
소재·부품·장비(4)	램리서치·어플라이드벤처스(반도체장비), 리틀휴즈(시스템반도체), 보그워너(車부품)
신산업(5)	에어프로덕츠·고어(수소경제), 프린시플파워(풍력발전), SST와이어리스(IoT센서), 피스컬노트(빅데이터 분석)
스타트업투자(1)	알토스벤처스(벤처캐피탈)

- 성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의 투자 매력요인으로 5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억불을 달성한 안정적 투자환경,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혁신역량 등을 들면서, 앞으로 한국과 협력이 유망한 투자분야로 수소경제, 반도체, 스타트업을 제안
- 참석기업들은 한국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핵심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동 분야에서의 투자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감을 표명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2019년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우수 기업연구소 공모 결과 35개 사를 우수 기업 연구소로 지정하고, 12월 24일 (주)에이텍티앤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
 -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여 기업 연구개발 분야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17년 도입 이후 지난 2년간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여 13개를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대상 분야를 제조업 전 분야로 확대하여 본격 시행
- 이번에 지정된 35개 우수기업연구소는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로,
 - * 전자제품·전자기기(6), 산업전자전자부품(7), 통신시스템 H/W(2), 수송기계(3), 일반기계·자동차기계(6), 정밀기계·기계부품(2), 의약생명(6), 화학고분자(2), 환경에너지(1)
- 기본 R&D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연구소의 우수성, 실제 연구현장과 일치 여부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연구소는 지정서와 현판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산업부) 가점부여, 민간R&D유공표창(과기정통부) 등
- 우수기업연구소 중 대표적으로 이번 지정서 수여식이 개최된 (주)에이텍티앤은 RFID 기반의 대중교통요금 결제기술로 국내외 교통카드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으로서,
 - 연구성과 인센티브 및 학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전 직원의 22%가 다양한 전공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짐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우수기업연구소와 더불어 4만여 개 기업부설연구소가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 기업연구소 : ('81) 53개 → ('04) 1만개 → ('14) 3만개 → ('18) 4만개 → ('19.11) 40,745개
 - '20년부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대상 분야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보다 넓은 분야에 혁신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 기업연구소를 분야별·역량수준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위한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 * 기업연구소 역량 진단·활용사업 : '20년 신규, 5.4억원
 - * 클라우드 기반 기업 R&D 혁신을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 '20년 신규,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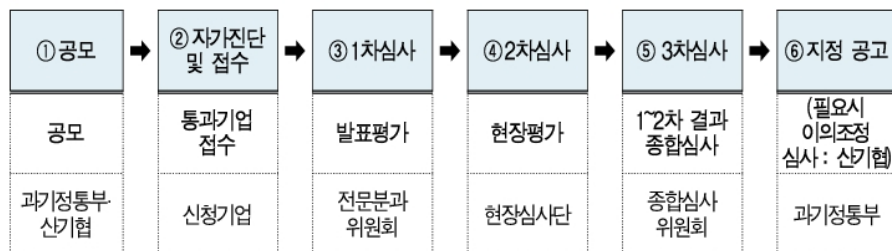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참고 1)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 개요

- (목적) 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이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지정하여 기업 R&D 선도모델로 육성
- (지정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 (지정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명의 지정서 발급)
 - * 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위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정대상) R&D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잠재력이 높은 기업연구소
 - 연구소의 R&D 활동이 기업가치 및 성과에 기여도가 높은 연구소
 - 기업 내외 타 연구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연구소
- (신청 자격)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며 3년 이상 기업연구소를 운영한 중소·중견기업
- (지정 기간) 연 1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
- (지정 절차) 자가진단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3단계 심사



- (인센티브) 과기정통부 지정서 및 현판 수여 등을 통한 홍보,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우대(ATC사업 가점), 민간R&D유공 표창

• (참고 2) 2019년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지역기업 소개

㈜프로템	대표자 : 황중국	기업규모 : 중소기업
	주 생산품 : R2R Coater, Slitter, Laminator	연구소명 : ㈜프로템 기술연구소
	종업원 수 : 60명	연구원 수 : 22명 (박사1명, 석사5명, 학사10명, 전문6명)
	상장여부 : 비상장	기업연구소 인정일 : 2006.08.01
	연매출 : 28,647(백만원)	연구소 소재지 : 경북 구미
	< 주요 보유기술 > ○ 연료전지 제조용 Roll to Roll 코팅 장비 기술 < 대표 제품 > ○ 박막코터 ○ 프리프레그 생산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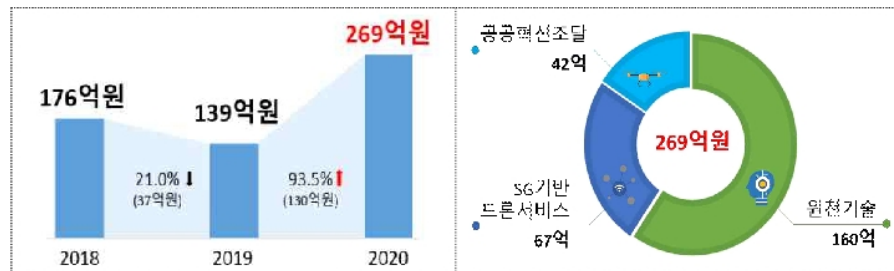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한 비가시권-군집비행이 가능한 드론운영기술개발, 육해공 공통 적용이 가능한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및 통합운용 실증 등 혁신적인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이 2020년 새로이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269억원을 투자하는 2020년도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2020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은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규모이며, 특히, 이 중 197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원천기술 확보와 5G를 활용한 신서비스 모델 창출을 중점 지원하게 됨



< 무인이동체 분야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 >

< 2020년도 분야별 투자 규모 >

- 먼저,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공통부품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무인이동체간 자율협력을 위한 통합운용체계를 구현하는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사업이 새로이 추진('20~'26, 1,702.8억원)
- 육·해·공 무인이동체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6대 분야* 원천기술 개발(18개 과제 내외)을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 * 탐지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 이동, 인간-이동체 협력기술, 시스템 통합
- ▲육·해·공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 ▲육·공분리합체형 배송용 무인이동체, ▲무인 수상선·수중자율이동 복합체계 등의 개발을 추진(3개 과제 내외)하여 개발된 원천 기술의 검증 및 통합운용도 지원해 나갈 계획
- 아울러,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단을 운영하여 연구단 간의 기술교류 및 성과 연계, 통합기술워크숍, 산업실태조사 등을 상시 지원
- 초기 드론 제작에서 드론 응용서비스로 급속히 확장되는 드론 산업의 변화에 대응 하여, 드론과 Data·Network·AI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드론 서비스모델 창출을 위해 DNA+ 드론기술개발이 새로이 추진('20~'24, 450억원)
- 5G를 활용하여 실시간 획득한 임무데이터를 인공지능학습으로 분석하고,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실증하는 한편, 관련 규제도 선도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드론운용사이동통신사인공지능 전문기업 및 관련 공공 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 특히, 컨소시엄은 기존의 드론 운용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킬러서비스*를 신기술의 융합(데이터, 5G, AI 등)을 통해 구현하고 이를 위한 비가시권 비행과 군집비행 등 드론 운용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됨
 - * (예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점검 및 운용, 정밀농업 지원 등
-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새로운 서비스 모델 창출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용을 위해 국토부(38억), 경찰청(19억) 등과 함께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체계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 과기정통부는 30억원을 투자할 계획
- 과기정통부는 ▲정밀통합 항법기술 개발 및 실증, ▲무인비행체 간 직접 정보교환 단말장치 개발, ▲보안기술 및 불법행위 억제기술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열악한 무인이동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달청과 공동으로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한 무인이동체 개발 및 공공조달과의 연계도 지속 지원('20, 25억원)하는 한편,
 -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과 치안 유지를 위한 무인기 기체(3종) 및 임무장비 개발도 내년 완료로 목표로 추진('20, 17억원)해 나갈 계획
- 과기정통부는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이동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개발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창출과 기술개발 성과의 조기 상용화가 필수적이라며,
 - 고성능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확보, 5G 활용 선도적 드론 서비스모델 창출, 그리고 공공조달 연계를 통한 초기시장 창출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5G 기반 DNA+ 드론 운용 예시 >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힘
-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 (2년형) 1,600만원 = 청년 300만원 + 기업 400만원<정부지원> + 정부 900만원
 - (3년형) 3,000만원 = 청년 600만원 + 기업 600만원<정부지원> + 정부1,800만원
-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 * 자세한 요건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참조

• 2020년 청년공제 사업 주요내용

-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추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
- ①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17),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17)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
- ②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개선)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 ③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됨
 -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
 -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 적립금은 미지급
 - ** (기존) 가입 6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 (개선) 가입 12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 ④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들음
 - * (기존) 월 500만원 → (개선) 월 350만원
<대졸신입 임금('19) : 대기업 월 342만원(연봉 4,100만원)>
 -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개선)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
- 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 재가입 가능
 -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⑥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함

*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 (개선)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

○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서 뿌리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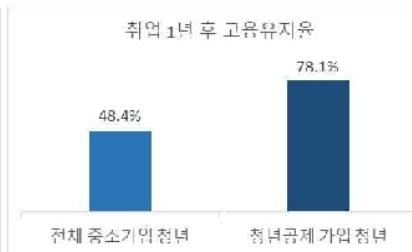
* 6대 뿌리기술 조합,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 한편, 청년공제는 '1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 수준임을 고려하여 대폭 확대되었으며,

○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19.12)

* ('16) 5,217명 → ('17) 40,170명 → ('18) 106,402명 → ('19.12) 98,572명

○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남



* 청년공제 내실화 및 확대방안 연구

* 고용보험 DB

•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갓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이 만기금을 바탕으로 결혼,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면서,

- 청년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수소경제 추진 1년, 눈부신 초기 성과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19.1.17) 1주년을 맞이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 행사 개요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월 13일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P2G, Power to Gas) 시스템* 제조 중소기업인 (주)지필로스를 방문하여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
 - *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시스템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
- 이날 행사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 수소생산, 저장 및 운송, 활용 등 수소경제 생태계 분야별 관련 기업 대표 약 20명이 참석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0.1.13(월) 11:30~13:00, (주)지필로스(경인도 용인 소재)
- 참 석 자 : 산업부 장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 (주)지필로스 등 수소 생태계 분야별 관련 기업 대표 약 20명

•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 1주년 성과

- 지난 1년간 로드맵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2019년은 수소경제 원년으로서 초기시장과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산업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

① 로드맵 발표 후, 착실한 후속대책으로 체계적 이행 뒷받침

- '19년 범부처 분야별 후속대책을 6건* 수립하고, 추경을 포함하여 보급 확대, 핵심기술개발 등에 약 3,700억원** 집중지원

* <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후속대책 >

(①표준)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4월), (②충전소-공급)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10월), (③수소차)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0월), (④R&D)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0월), (⑤도시) 수소시범도시 추진전략(10월), (⑥안전)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12월)

** 수소차(버스) 및 충전소 보조금, 자동차연료전지 핵심기술개발, 수소생산기지구축 등

② 그 결과,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는 중

- 수소차 : 日 등 경쟁국을 제치고 '19년 최초로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 * '19.1~10월 글로벌 판매량(대) : (현대) 3,666(비중 60%), (도요타) 2,174, (혼다) 286
 - 누적 수출 1,700대 초과, 유럽, 대양주 중심으로 수출국 대폭 확대('18, 11개 → '19, 19개) 등 신규시장 개척 성과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 수소차 수출(누적, 대) : ('17) 709 → ('18) 936 → ('19.末) 1,724
 - 특히, 10톤급 수소트럭 1,600여대 스위스向 수출 계약을 체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어 해외시장 개척 성과 가속화 전망
 - 국내 보급도 로드맵 수립 전년대비 약 6배 성장하여 5,000대를 돌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요 창출
- * 수소차 보급(누적, 대) : ('17) 179 → ('18) 908 → ('19.末) 5,097
 - 특히, 9월부터 서울 시내를 주행하고 있는 수소택시는 평균 3만km 이상 운행하며 총 2만 2천여명의 승객들이 수소택시를 경험
- * 수소택시 실증(10대, '19.9.10~) : 총 주행거리 31.3만km, 총 승객 22,374명
 - 수소 버스 보급('19, 13대), 노후 경찰버스를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등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수요를 적극 창출
- * 산업부-환경부-경찰청-현대차 MOU 체결('19.10, '28년까지 820여대 전환)
 - 수소충전소 : 수소경제 확산 핵심 인프라, '19년 세계 최대 구축
 - * ('18→'19) : (韓) 14→34, (日) 102→112, (獨) 66→81, (美) 74→70
 - 총 34기가 운영중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18.末 14기)되고, 추가로 20여기를 착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 대폭 증가
 - 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특수목적법인(SPC) 수소에너지 네트워크(주)를 출범('19.3)
 - * HyNet(하이넷, Hydrogen energy Network) : 한국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사 참여
 -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 등 관련 규제를 10건 이상 개선하여, 그 결과 규제 샌드박스 1호 상징물로서 국회에 수소충전소 개소('19.9)
 - 연료전지 : 세계 최대 발전시장, 글로벌 보급량의 40% 점유
 - * 연료전지 발전량('19.末, MW) : (韓) 408, (美) 382, (日) 245
 - * 발전용(MW) : ('18) 328 → ('19.末) 397, 가정·건물용(MW) : ('18) 7 → ('19.末) 11
 - 한국의 연료전지 발전·운영 경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美 코네티컷 데이터센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연료전지 공급 결정
 - * 두산퓨얼셀, 20MW('20.下)를 시작으로 최종 44MW까지 구축 및 운영 예정
 - 또한, 수소연료전지드론이 2020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
 - *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 수소연료전지용 파워팩 및 수소연료전지드론
- ③ 미래에도 지속 성장 가능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소경제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 제정('20.1.9)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을 다져가면서, 기술경쟁력도 확보
 -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19.12)을 통해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수소충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 3대 핵심시설을 중점관리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CO₂ 배출이 없는 Green 수소생산,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R&D 투자를 대폭 확대('19, 936억원, 34% ↑)
- 도시 내 교통(수소차버스), 주거(연료전지), 기술(통합 플랫폼) 등 수소생태계를 종합 구현하는 수소시범도시 선정
- 중장기 해외수소 도입을 위해 호주, 사우디 등과 글로벌 협력 강화*, 국제표준** 1건 제정 및 추가 제안 등 글로벌 표준 선점 노력도 결실
- * '19년 체결 수소협력 : (MOU) 노르웨이(6월), 사우디(6월), 이스라엘(7월), (LOI) 호주(9월)
- ** 마이크로 연료전지시스템('19.5, 제정), 건설기계용 연료전지시스템 성능평가기술('19.6, 제안)
- **향후 추진 방향**
 - 정부는 이러한 추진 성과를 토대로, 수소경제가 미래 성장동력이자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
 - ① **수소경제가 민간 주도로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까지 규모의 경제 마련을 위한 시장을 지속 창출**
 - 초기 수소차, 연료전지, 충전소 보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지원
 - ② **경제성 있는 수소 생태계 조성**
 -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비용 절감
 - 증가하는 수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생산방식, 거점형 생산기지 구축 등을 통해 효율적·체계적 수소 공급망 마련
 - ③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로의 토대 마련**
 - 그린수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수전해 R&D 본격 추진, 호주, UAE 등 잠재적 수소 생산국과 해외도입 협력 가시화
 -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총괄조정기구로 활용하고, 산업진흥, 안전,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안정적 산업지원
 - 동 행사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과 1년 만에 수소경제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결실을 만들어 낸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 지난 1년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민·관이 더욱 합심해달라고 당부
- **제주 그린수소 전주기 실증 프로젝트 MOU 체결**
 - 아울러, 동 행사를 마치고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중부발전, 현대자동차,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추진단 등 4개 기관은 제주 그린수소 전주기 실증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동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제주도의 미활용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전지, 수소버스,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프로젝트 추진 타당성 검토를 올해 6월까지 추진할 계획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제조 소기업을 위한 전용 지원사업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지역 및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이 새로 도입
- 중소기업부는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585억원을 투입, 1,800개 제조기업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힘
- 이 사업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과 평가를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최대 5천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
 - 지원 대상산업(업종), 지원시기 등은 지역 주력산업, 지역 위기산업, 대기업 이전에 따른 피해산업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별 위원회* (위원장:지방중기청장)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
 - * 지방중기청,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코트라, 테크노파크,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 지원방식은 패키지 지원 방식이고, 보조율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는 5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0%,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0%, △3억원 이하는 90%까지 지원하는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일수록 지원 비율을 높임
-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를 희망하는 서비스 수행기관(제조 혁신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572개 기관)에 사용하고,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부는 지역마다 중점 육성 산업(업종), 침체 산업, 시급히 지원할 사업 등 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
- 또 기업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 역시 제각기 다름에 따라, 정확한 진단과 함께 기업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해 작지만 강한 제조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
-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말 중소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포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참고 : 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내용 >

지원분야	세부 지원 내용
컨설팅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산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케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 3개 분야 14개 프로그램 지원,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01.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시행 (관계부처)

□ 개요

-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주력산업용 첨단 반도체, 저전력·고성능 신소자, 원자 수준의 미세공정 기술 등 미래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범부처 합동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착수를 위한 과제 기획을 완료하고, 1월 20일부터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힘
- '20년 정부출연 891억원 등 향후 10년간 1조원이 투자될 동 사업은 소자, 설계, 장비·공정 등 기술개발 전 주기를 아우르며,
 -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설계 기술 및 신소자 기술 개발('20, 424억원)을, 산업부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기술과 장비·공정기술 개발('20, 467억원)을 담당
- 그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메모리 중심의 불균형적 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4차 산업 혁명 도래에 따른 미래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왔음
 - '17년부터 공동으로 사업 기획을 추진하였으며, '19년 4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개요 >

- (목표) 미래 수요대응, 신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 확보
- (기간·금액) 과기정통부 4,880억원('20~'29), 산업부 5,216억원('20~'26) 총 1조 96억원
 - * 최근 5년간 R&D 예타 사업 중 1조원 규모를 넘는 사업은 동 사업이 유일
- (주요 내용) 전력소모 감소 및 고성능 구현을 위한 미래소자(과기정통부), 연산속도 향상을 위한 설계기술(과기정통부·산업부),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는 원자단위 공정·장비 기술(산업부) 등
- 이후, '20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제기획 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학연 대상 기술 수요조사, 사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야별 최종 추진과제를 확정

< 부처별 주요 추진내용 >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 (설계) 인공지능 프로세서(NPU 등), 초고속 인터페이스, SW 등 • (소자) 저전력·고성능 신소자 및 상용화 연계를 위한 집적·검증 기술 등	• (설계) 경량 프로세서, 초고속 스토리지, 센서, 모뎀, 구동 및 제어기술 등 • (장비·공정) 원자단위 미세화, 수직 증착 기술 등

□ 분야별 세부 기술개발 추진방향

①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 인공지능 반도체의 제품 완성도, 신뢰성, 활용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프로세서(NPU* 등), 초고속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컴파일러 등)를 통합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

* Neural Processing Unit(신경망처리장치) : 대규모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AI 프로세서

FOCUS

- 응용분야에 따라 서버·모바일·엣지 분야별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갖는 인공지능 프로세서(NPU 등)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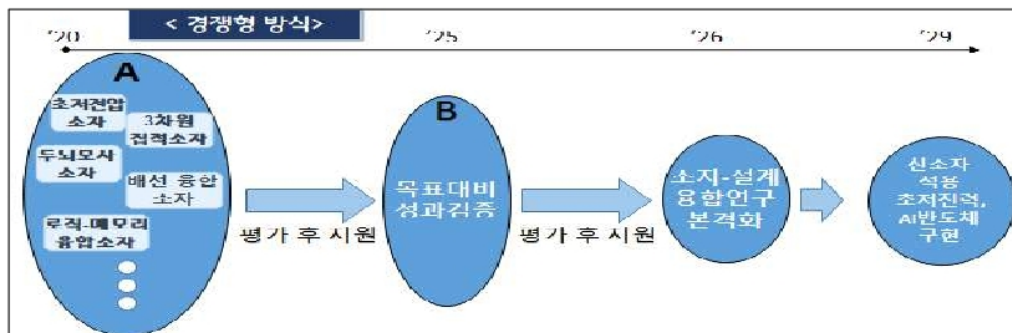
【서버분야 예】

(~'24) 100 TFLOPS AI 프로세서 개발 → (~'27) 200 TFLOPS AI 프로세서, 데이터센터용 2,000 TFLOPS급 AI 서버용 딥러닝 모듈 개발 → (~'29) 1,000 TFLOPS AI 프로세서(신소자 적용) 개발

- 개발된 플랫폼 기술은 설계전문기업(팹리스) 등이 다양한 제품 개발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플랫폼 커뮤니티를 운영
- 과제 수행기관은 플랫폼별 세부 과제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방식으로 선정하며,
 - * 서버/모바일/엣지 플랫폼별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를 묶어서 하나의 컨소시엄 구성
- 기술력을 보유한 팹리스, IP 전문기업* 등의 참여, 기술개발과 연계한 최고급 인재 양성 등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 팹리스 및 파운드리 기업이 적용·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 자산(IP)을 제공하는 기업

② 신소자 분야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 신소자 분야는 기존 소자의 한계 극복을 위한 초저전력·고성능의 새로운 소자 개발을 목표로,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기술로 채택될 수 있는 원천 IP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
- 구체적으로 초저전력·고성능의 목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원리*의 신소자 원천기술 개발에 115억원,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용화 연계를 위한 집적·검증기술개발에 45억원,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 도전적 기초기술**에 14억원을 지원
 - 특히 동 사업이 목표 지향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신소자 원천기술의 경우 경쟁형 R&D 방식을 도입, 단계별(예: 3년, 5년차) 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 * 초저전압소자, 3차원 집적소자, 로직-메모리 융합소자, 두뇌모사 소자, 배선융합소자 등
 - ** 개발기간 내 집적검증 등 상용화 연계 가능성은 낮지만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꿀 와해성 혁신 아이디어 지원 병행(이 중 우수한 성과는 신소자 원천기술로 연계 가능)





FOCUS

- 5년차인 1단계 연구의 마무리 시점에서는 설계 분야와 공동연구 수준이 가능한 소자 기술을 집중 발굴하여,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소자-설계 융합연구를 통해 초저전력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구현할 예정

③ 차세대 반도체 설계기술 개발(산업부)

- 자동차, 첨단 가전, 의료·바이오, 에너지, 첨단로봇 등 5대 전략산업 및 공공 수요와 연계하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 반도체(SoC)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①경량 프로세서, ②스토리지, ③센싱, ④연결 및 보안, ⑤제어 및 구동 등 5대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
- 금년부터 시작되는 대표 과제로는 5대 전략산업과 관련된 ①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다중 신호처리 및 보안 기능이 강화된 차량통신용 SoC, ②자가 화질 개선 및 AR/VR을 위한 통합 디스플레이용 SoC 등이,
- 공공수요 연계를 통한 안전한 국민생활 지원을 위한 과제인 ①5G 기반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발찌용 SoC, ②지하 매설시설의 가스 누수 감지를 위한 SoC 등이 있음
- 사업 종료시점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구동 SoC, 초고속 데이터 전송용 SoC, 초장거리 상황인지용 SoC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술 확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

【디스플레이용 SoC 예】

(~'22) 8K-120Hz급 → (~'26) 16K 240Hz 차세대 초고화질 AR/VR MicroLED용 SoC

【초고속 데이터 전송용 SoC 예】

(~'22) 2.5GB/s급 → (~'26) 10GB/s급 고용량 데이터 처리용 이기종/다중 센서 인터페이스 통합 SoC

④ 미세공정용 장비공정기술 개발(산업부)

- 장비·공정 분야에서는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핵심인 공정 미세화를 위한 미세공정용 장비·부품 기술을 개발
- 금년부터 대표적으로 ①차세대 메모리, 고집적 시스템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자 레벨 증착 장비 및 자동 검사 기술, ②차세대 고집적 패키지를 위한 열처리 및 중성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에러 검출 기술 등을 개발
- 사업 종료시점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용 10나노 이하 공정 장비와 3D 패키지 장비 기술 확보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

【공정장비 예】

(~'22) 100Å이하급 → (~'26) 50Å이하급 원자수준공정 증착 장비 핵심기술 확보

- 장비·공정과 설계 분야간 연계 강화를 위해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확보된 장비·공정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설계기술 개발도 향후 지원할 예정
-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최종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전문기업과 수요기업간 협력 플랫폼(얼라이언스 2.0)을 적극 활용하고,

FOCUS

- 아울러,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분야 간 연계·협력 및 민간 중심의 사업 수행 강화를 위해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
- 사업단은 부처별 연구개발 전문기관과 사업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역할을 분담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성과관리 등의 효율성도 제고
- 또한, 사업단장은 반도체 전반에 대한 지식과 R&D 경험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과제 기획 및 관리, 성과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핵심이자 격전지로, 아직 압도적 강자가 없는 산업 초기 단계이므로 한발 앞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고,
-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 민간투자 촉진 등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불을 일으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반도체 1등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시스템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으로 미래차, 바이오와 함께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3대 신산업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 기술력, 대형 수요기업 보유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잘 활용하고, 팹리스 육성, 인력양성 등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해 메모리 강국을 넘어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힘
- (참고) 인공지능 반도체 개요
 -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주는 반도체로 정의
 - 저전력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여 인공지능 기술(딥러닝 등) 구현에 최적화되어 있는 반도체

구분	기존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특징	데이터를 프로그램대로 순차적 처리	인간의 뇌처럼 기억, 연산을 대량으로 동시(병렬) 처리
구조	< 순차 선형 신호처리 >	< 대규모 병렬 비선형 신호처리 >
반도체 블록도 (예시)	< 모바일용 기존 반도체 >	< 모바일용 인공지능 반도체 >



02.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관계부처)

□ 개요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19년 총 195건의 과제 승인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 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
-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갈등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평가보상체계 개선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3일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 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마련

1. 시행 1년의 평가

1 주요 성과

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모델을 정립

-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
-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심사*

*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 소요, 영국·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

②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

- 2019년 총 195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
- 분야별로는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지역혁신 순이며,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195건(100%)	40건(21%)	39건(20%)	77건(39%)	39건(20%)

-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순으로 승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158건(81%)	21건(11%)	16건(8%)

- 규제신속확인*은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

*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30일 이내 회신,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

대기업	대형금융기관	중소기업	공기업
50건(26%)	22건(11%)	137건(70%)	8건(4%)

FOCUS

- 기술별로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App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해당

App 기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VR	AI
115건(59%)	23건(12%)	19건(10%)	14건(7%)	10건(5%)	5건(3%)

-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③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 가시화

-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

합계	금융위(혁신금융)	과기부(ICT융합)	산업부(산업융합)	중기부(지역특구)
58건(100%)	27건(47%)	16건(28%)	15건(25%)	-

- 기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
- 시장 출시 과제는 이용자와 매출이 증가하고,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이 확산
* 21개 기업,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 20여개 기업 해외시장 진출

○ (국회 수소충전소) 월평균 이용자 수 34%, 매출 41% 증가('19.12, 2,154대 이용)

○ (모바일 전자고지) 15개 기관 39종 고지서 모바일로 전환(약 2천만건, 79억원 절감)

◎ 승인기업의 규제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2019.11.14.~21일, 행정연)

- ▶ 승인기업의 90.2%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장진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79.1%)이 1위를 차지.

◎ 승인기업 대표 심층인터뷰(2019.11.22.일)

- ▶ 식품위생법상 커피에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 규제개선을 요구했으나 불발. 규제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결과, 4개월 만에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고,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음(라떼아트 3D 프린터).

◎ 일반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결과(2019.11.14.~28일, 행정연)

- ▶ 규제샌드박스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3%로 '19년 3월(21%) 대비 2배 증가
- ▶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완화(86.2%)와 경제활성화(80.6%), 적극행정 유도(51.2%)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④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고, 공유경제, 핀테크 등 신산업 실험을 진행

* 非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DTC)를 허용하여 비만 관리 6종(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의 실증연구 개시('19.12.30)

○ (공유주방)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4.29) 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 까지 허용(7.11)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On-Off 여행자보험) 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해지('19.4.17)



FOCUS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시장을 신규 창출

* 모바일 운전면허증,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⑤ 규제샌드박스 효과가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고, 14개 과제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중

*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

- 이밖에도 58개 과제*가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중이므로, 일정기간의 실증이 종료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라떼아트 3D 프린터, 대출비교 플랫폼,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2 보완 필요사항

- 전문가 회의, 기업 인터뷰, 규제혁신포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
-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또한, 신청과정에서의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조건을 변경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2. 발전방안

- 지난해 4월과 7월,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 데 이어,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

1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 ① (신청·접수 단계) 기업이 쉽게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다 높일 계획

▶ 민간 접수기구 신설 ▶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

- 먼저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통해 신청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관협력 모델의 좋은 계기로 만들 계획
-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
- 신설되는 민간 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제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확대해나갈 예정
- 그 밖에도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



FOCUS

- 이를 토대로 DNA(Data·Network·AI) +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해나갈 계획
- 특히 지난 1월 9일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

② (심사 단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

▶ 신속처리 제도 보강 ▶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6개월) 폐지

-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아울러,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③ (실증 단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

▶ 전 부처 규제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 규제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위해 금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해 매년 10~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규기준 개발과 제품성능 개선을 지원

④ (법령 정비 단계)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

▶ 법령유형별 정비기간 지정 ▶ 법령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추진

-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하에 조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일반사업자도 이른 시일 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시까지 특례를 연장
- 임시허가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과 지역특구법(지역혁신)상의 법령 정비 지연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을 정보통신융합법(ICT융합)에도 신설해 사업자 불안을 해소하고,
-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 그 밖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종합점검체계를 구축할 예정



< 참고 : 임시허가·실증특례 법령정비 지연시 대책 >

구분	현행	개선
【 ICT융합·산업융합·지역혁신 】		
임시허가	법령 정비 지연시 자동연장 (산업융합, 지역혁신)	⇒ ICT융합 임시허가 자동연장 도입
실증특례	1회 연장(2+2년) 후 종료	⇒ ① 특례 추가 연장(법령상 금지) ② 임시허가 전환(모호·불합리)
【 금융혁신 】		
혁신금융 서비스	1회 연장(2+2년) 후 종료	⇒ ① 특례 추가 연장(영업규제) ② 스몰라이선스(임시허가) 도입 (진입규제)

2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 자금·세제 지원 확대

-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승인과제의 시장진출 촉진에 주력
-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
-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 확대
 -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
 -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 ▶ 先적극행정-後규제샌드박스 원칙 적용

-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
-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 그 밖에, 기존 4개 분야 외에도 필요한 경우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를 확대해 전문적 대응을 강화해나가고,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